

미국 정부 건설업 관련 주요 보도자료

※ 미국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중 건설업과 관련된 주요 내용만 요약함.(26.04.01~26.04.30)

- **미국 교통부(DOT), 미국 해양 패권 복원 및 항만 현대화를 위한 약 5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4/1]**
 - 미국 교통부(DOT)의 손 더피 장관은 미국의 해양 패권을 회복하고 전국 항만·조선소·해사 역량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총 4억 8,862만 8,000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투자는 교통부 산하 해상교통청(MARAD)의 '항만 인프라 개발 프로그램(PIDP)'을 통해 집행되며, 공급망 안정성 강화와 물류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국 가계의 물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음
 - 주요 지원 사업은 항만의 화물 처리 역량 확대, 공급망 흐름 최적화, 항만 인프라 및 운영 시스템의 현대화에 집중됨. 특히 수산업 및 관련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해양 산업 전반의 자생력 제고를 도모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가 인프라의 본질적 가치에 집중하고 있으며, 국민의 세금을 국가 해양 경쟁력 재건이라는 핵심 분야에 투자하고 있음을 강조함
 - 이번 투자에서 주목할 점은 전체 예산의 최소 25%인 약 1억 2,215만 달러를 '소규모 항만 프로젝트'에 별도로 배정해, 대형 항만뿐 아니라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중소 항만의 동반 성장을 추진한다는 점임. 또한, 보조금 심사 기준을 개편하여 기회구역(Qualified Opportunity Zones) 내 사업, 혁신 기술 도입, 국가 다목적 화물 운송 목표에 부합하는 프로젝트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예정임
 - 교통부(DOT)는 이러한 전략적 투자를 통해 항만 혼잡을 완화하고 물류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미국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해양 인프라의 새로운 도약기를 열겠다는 방침임
- **미국 교통부(DOT), 해상 고속도로 강화 및 공급망 혁신을 위한 1,300만 달러 규모 투자 발표 [4/1]**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내 수로 기반 화물 운송 역량을 강화하고 공급망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총 1,300만 달러 이상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자금은 '미국 해상 고속도로 프로그램(USMHP)'을 통해 집행되며, 도로와 철도에 집중된 화물 수요를 해상 및 내륙 수로로 분산시켜 육상 교통 혼잡을 완화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는 데 핵심 목적이 있음.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프라 재건 전략의 일환으로, 수로를 국가 경제 성장의 핵심 인프라로 재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반영함
 - 이번 투자는 미시시피, 루이지애나, 뉴저지 등 주요 수로 거점 항만의 시설 현대화, 화물 적재 장비 확충, 운영 효율성 제고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됨
 - 특히, 노후화된 항만 인프라를 개보수하여 화물 처리 속도와 용량을 동시에 개선함으로써, 대형 트럭 의존도를 낮추고 도로 마모 및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됨. 이는 물류 네트워크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미국 가정에 필요한 상품을 보다 안정적이고 낮은 비용으로 공급하기 위한 실질적 경제 대책의 일환임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해상 고속도로 활성화가 제조업 및 유통망을 강화하고 해운 분야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등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현하는 핵심 수단임을 강조함

- 교통부(DOT)는 향후에도 민간 파트너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확대하여 미국 수로를 세계 최고 수준의 물류 인프라로 육성하고,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해상 운송 자립도 제고에 지속적으로 주력할 계획임

□ 미국 교통부(DOT), 소형 조선소 현대화 및 해양 패권 강화를 위한 3,500만 달러 투자 발표 [4/1]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해양 산업의 경쟁력 회복과 소형 조선소 활성화를 위해 총 3,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재건' 기조에 따라 해상교통청의 소형 조선소 지원 프로그램(Small Shipyard Grant Program) 예산을 전년 대비 약 300% 대폭 증액해 편성한 결과임. 이는 침체된 조선 산업을 재건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동시에, 고임금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려는 전략적 목적을 지님
- 지원금은 주로 노후화된 선박 건조 및 수리 시설의 현대화에 집중 투입될 예정이며, 최신형 크레인, 플라즈마 절단기, 첨단 용접 시스템 등 고성능 장비 도입을 통해 조선소의 작업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짐. 또한, 시설 개선을 넘어 해양 분야 숙련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강화됨. 이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이 미래 해양 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기술 역량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선박 건조·수리를 국내에서 수행하는 자립적 해양 산업 생태계 구축을 추진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의 해양 패권(Maritime Dominance)' 회복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함
- 보조금 지원 대상은 상업용 또는 정부용 40피트 이상 선박, 혹은 100피트 이상 비상업용 선박을 건조·수리하는 조선소로 한정됨
-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혁신 기술 도입 프로젝트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둠
- 이러한 조치는 물류비용 절감과 공급망 효율성 제고를 통해 미국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강력한 해상 운송 기반을 바탕으로 국가 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미국 교통부(DOT),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속도로 비전 계승한 I-95 델라웨어강 교량 재건에 6억 달러 투자 발표 [4/1]

- 미국 교통부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제시했던 주간 고속도로 시스템(Interstate Highway System)의 비전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도로 인프라를 전면적으로 혁신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 이번 발표는 수십 년간 정체되어 온 도로 용량을 확충하고, 경제와 국가 안보의 핵심 기반인 고속도로망을 '미국 고속도로의 황금기' 수준으로 재건하겠다는 강력한 정책 의지를 반영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아이젠하워의 비전이 오늘날 미국 성장의 토대였음을 강조하며, 노후화된 현재의 인프라를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 정비하겠다고 밝힘
- 주요 추진 과제로는 상습적인 교통 정체 구간 해소를 통한 물류 비용 절감, 첨단 안전 기술 및 도로 설계 도입을 통한 교통사고 사망률 감소 방안 등이 포함됨
- 특히, 복잡한 행정 절차와 환경 영향 평가를 간소화하여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이는 이른바 '트럼프 스피드'를 적용함으로써,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실행력을 강화할 방침임
- 이는 관료적 지연을 해소하고 재원을 실질적인 도로 건설 및 유지보수에 집중함으로써, 세금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의 이동 편의를 극대화하려는 목적을 지님

- 또한, 이번 고속도로 현대화 전략은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해 물가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견고한 도로 인프라가 곧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전국 단위 연결성 강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함
- 이에 따라 교통부(DOT)는 향후 주 정부 및 민간 파트너와 협력을 확대해 아이젠하워 시대의 도전 정신을 계승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전하고 효율적인 국가 고속도로망 구축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임

□ **미국 교통부(DOT), 미국 페리 인프라 현대화 및 접근성 강화를 위한 6억 5,700만 달러 투자 발표 [4/6]**

- 미국 교통부 장관은 미국 전역의 페리 서비스 개선과 인프라 현대화를 위해 총 6억 5,7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투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재건' 기조에 따라 노후화된 페리 선단을 교체하고 운항 노선을 확대하여, 미국 노동자와 가정에 보다 다양하고 효율적인 교통 선택지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이번 자금은 연방교통청(FTA)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 도시와 농촌 지역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해상 교통망 구축에 활용될 예정임
- 주요 투자 분야는 일반 여객 페리 프로그램, 친환경 전기 및 저탄소 페리 도입 지원, 농촌 지역 페리 서비스 강화 등으로 구성됨
- 특히, 이번 계획은 가족 친화적 이동 환경 조성을 핵심 가치로 삼아, 유모차 이용 가정과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둬. 또한, 대기 공간 안내 표지판을 큰 글씨와 쉬운 언어로 개선하는 등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웨이파인딩(Wayfinding) 시스템 현대화도 병행 추진됨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페리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일자리와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하며, 이번 투자가 미국 해상 교통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힘
- 교통부(DOT)는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민간 및 지방 파트너와 협력을 강화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임
- 이번 대규모 투자는 미국 해상 운송 역량을 강화하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현대적 교통 환경 구축을 목표로 한 정책 의지를 반영함

□ **미국 교통부(DOT), 소외 지역 및 원주민 부족 거주지 교통 인프라 혁신을 위한 5,420만 달러 투자 발표 [4/6]**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전역의 농촌 지역과 원주민 부족 거주지의 교통 인프라 사업을 가속화하기 위해 총 5,420만 달러 규모의 지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투자는 '농촌 및 원주민 지원(Rural and Tribal Assistance, RTA) 파일럿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되며, 엄격한 심사를 거쳐 25개 주, 총 49개 프로젝트가 최종 선정됨. 이 가운데 31건은 농촌 지역, 18건은 원주민 부족 프로젝트에 배정되어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함
- 특히, 이번 지원은 단순한 건설 비용 보조를 넘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법률·기술·금융 자문 제공과 전담 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사전 개발 단계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임. 이는 자원과 전문성이 부족한 소규모 지역 공동체가 실질적으로 인프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임

- 선정된 프로젝트는 노후 교량 및 도로 개보수, 교통 안전 및 이동성 개선, 항만 시설 현대화, 복합 운송 체계 확충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함. 이러한 인프라 개선을 통해 사람과 물자의 이동 효율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고립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것이 핵심 목표임
- 특히, 트럼프 행정부는 원주민 부족 거주지의 자립적 경제 기반 구축과 안전 강화를 위해 전체 예산 중 약 2,000만 달러를 별도 배정하는 등 정책적 의지를 강조함. 또한, 이번 보조금은 지방 정부의 매칭 펀드 의무 없이 선착순 방식으로 지원되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도 차별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됨. 실제로 49개 주에서 총 799건의 신청이 접수되는 등 높은 수요가 확인됨
- 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 재건' 비전을 실현하는 핵심 정책이며, 모든 국민이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안전하고 현대적인 교통 인프라를 누릴 권리가 있음을 강조함. 이번 조치는 농촌 및 원주민 지역의 인프라 격차 해소와 함께 지역 기반 일자리 창출을 통해 국가 균형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 교통부(DOT)는 향후에도 민간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해 미국 전역을 연결하는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교통망 구축에 지속적으로 나설 계획임

□ 미국 교통부(DOT), 철도 현대화 및 안전 강화를 위한 20억 4천만 달러 투자 발표 [4/20]

- 미국 교통부(DOT)는 미국 전역의 철도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운송 안전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총 20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투자는 철도 이용 경험을 개선하고 화물 운송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궁극적으로 미국 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함
- 해당 자금은 연방철도청(FRA)의 '철도 인프라 및 안전 개선(CRISI)' 보조금 프로그램을 통해 집행될 예정임
- 주요 사업은 철도 노선의 병목 구간 해소를 통한 운행 지연 감소, 노후 지역 철도 시설 현대화를 통한 여객 및 화물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포함함
- 특히, 선로 무단 침입 방지 및 사고 예방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인명 피해를 줄이는 등 안전 대책에 중점을 둔 것이 특징임. 이는 단순한 시설 보수를 넘어, 국민이 일자리·교육·의료 서비스에 보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전략적 조치임
- 쏘 더피 교통부 장관은 이번 투자가 미국 철도의 새로운 도약을 여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트럼프 행정부 기조에 맞춰 신속하고 효율적인 인프라 재정비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됨
- 교통부(DOT)는 향후 민간 파트너 및 지역사회와 협력을 확대해 철도 현대화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미국 철도망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주력할 계획임

□ 미국 교통부(DOT), 국영 철도 암트랙 현대화를 위한 50억 달러 규모 투자 발표 [4/20]

- 미국 교통부(DOT)는 암트랙의 인프라 현대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약 50억 달러(약 7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함
- 이번 투자는 노후화된 철도 시설을 전면 개보수하고 열차 운행의 정시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보다 쾌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동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음
- 특히, 미국 내 이용 수요가 가장 높은 동북부 간선(Northeast Corridor, NEC)의 핵심 인프라 개선과 함께 전국 철도망 확충에 자금이 집중 투입될 예정임
- 이번 계획은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국 철도의 황금기'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철도 인프라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둬

- 주요 사업에는 노후 교량 및 터널 보수, 차세대 열차 도입, 역 시설 현대화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여객 운송 효율성을 높이고 만성적인 지연 문제를 해소할 방침임. 또한, 첨단 디지털 안전 시스템을 도입해 열차 사고를 예방하고, 운영 전반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할 계획임
- 손 더피 교통부 장관은 암트랙이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경제적 기회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임을 강조함. 이에 따라 교통부는 보조금 집행 과정에서 투명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고, 민간 부문과 협력을 확대해 인프라 구축 속도를 높일 방침임
- 이번 대규모 투자는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철도 경쟁력을 좌우할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되며, 국가 전반의 물류 및 이동 체계를 혁신하려는 정책 의지를 반영함